인권정보자료실
M1.10

개인/단체 간 평등한 연대와 소통을

"그것은 기본!"

2004. 3.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_ http://www.dadam.org

인권정보자료실
M1.10

_Contents

02 _개인/단체 간 평등한 연대와 소통을 위해

03 _성역할 구분과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 기르기

04 _권위주의를 깨트리기 위한 실천

06 _장애여성/장애인

06 _장애여성이 말한다! 친절의 조건

07 _장애인과 만남을 가질 때 체크해야 할 편의시설

07 _장애를 가진 사람과 만날 때 지켜야 할 점

08 _아웃팅, 무엇이 문제인가

10 _아웃팅 문제 관련하여 '다름으로 닮은여성연대'에서 기울여 온 노력들

11 _무지개 포럼 및 무지개 시위 시 주의할 사항

13 _언론 보도 용 사진 자료 우송 건

14 _장애여성공감 소개

15 _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소개

16 _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소개

18 _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소개

_개인/단체 간 평등한 연대와 소통을 위해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이하 다닮연대)에서는 "3.8 여성무지개시위 2004"를 준비하면서 연대매뉴얼을 만들게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닮연대와 다닮연대를 만들고 있는 단체들은 수많은 단체와 언론, 시민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도전적인 일이라서 많은 편견에 직면해야 했었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배자는 자신의 언어로만 얘기해도 되고, 피지배자는 자신의 언어와 지배자의 언어를 모두 알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듯이 주류사회가 소수자의 목소리와 방식을 먼저 배우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언제나 접해보지 못해서, 잘 몰라서,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사람들은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때로 그 '실수'는 어떤 이의 삶을 휘청거리게 할 만큼 엄청난 것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일상속의 작은 성찰로도 누구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매뉴얼을 준비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적어도 누군가 함께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그러한 시각과 자세와 노력을 갖추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본'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함께 해갈 때 신뢰에 기반한 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본'은 점점 늘어가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을 제안하고 함께 지켜가는 아름다운 노력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했던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운동의 지향과 방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바랍니다.

2004. 3 8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단체가 서로 연대하는 방식은 그 운동의 정치성을 반영합니다. 진보의 관점에서, 주류와는 다른 관점에서 운동을 해나가고자 할 때, 그 단체가 연대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 역시 주류의 차별적인 질서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사회의 차별 구조인 나이주의와 권위주의, 정상신체주의와 이성애중심주의 등에 저항하고 새로운 연대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_성역할 구분과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 기르기

사회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는 진보적인 운동 단체 활동 내에서도 모습을 드러내기에, 성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일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단체 내의 성폭력과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해 단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인식과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농담으로', '항상 하던 대로 가볍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여성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성원 내부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내부 규약을 마련하여 성폭력이 구조적 권력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남녀간 성역할과 성별 분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단체에서는 대표나 단체장과 같은 중심적인 역할은 남성에게 주어지고, 여성은 남성을 보조하고 실무를 처리하는 일을 주로 맡아 왔습니다. 여성 실무자의 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체에서도 중요한 의사 결정을 맡는 역할이나 단체의 상징적인 인물이 남성인 경우가 흔히 있어온 것 역시 사실입니다. 집회를 조직하고 발언을 맡는 것 같은 행

위는 남성이, 자료의 편집과 행사물품을 챙기는 것 같은 사무적인 일을 여성이 맡는 것 또한 흔합니다. 이러한 역할 분배의 과정이 성차별적인 의도를 담은 것이 아니라 관례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서로간에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입니다.

_권위주의를 깨트리기 위한 실천

인권을 위해 일하는 운동 단체 내에서도 직책은 존재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 그것이 서열과 위계로 작동하기도 합다. 연대 단위 안에서도 단체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쌍방향의 원활한 소통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꼭 필요한 비판이 금기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무자들이 모인 연대회의 석상에서 한 단체의 대표가 등장하면 그 역시 한 구성원으로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그가 회의 및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책 중심의 의사진행과 그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단체 간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므로 지양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자원활동가의 경우에, 단지 자원활동가라는 이유만으로 평등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막는다거나 정보공유에서 배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원활동가를 초보자나 어린 사람, 낮은 직급의 활동가로 전제 해버리는 경향도 팽배합니다. 물론 '초보자'이거나 '나이가 어릴' 수 있지만, 그러한 기준을 기존의 활동가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활동가들 안에서도 나이에 따른 차별이 종종 일어나는데, 처음 만났을 경우 나이와 학번을 묻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말을 놓는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학번을 묻는 것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학력차별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단체 간 만남에서 기본적으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존댓말을 서로 사용해야 함에도 나이를 이유로 반말을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며 나이를 근거로 한 차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사람이 활동한다고 해서 '장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은 나이와 관련된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호칭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부르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단체의 활동가들이 '상대적으로 어린 편'이라고 해서 그 단체나 활동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각 단체는 규모나 조직, 재정상황, 활동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만큼, 각 단체의 특성과 그에 따른 상황을 이해하고 연대 활동 시에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랜 역사와 많은 성과를 가진 단체의 역량은 연대 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자원을 가지지 못한 단체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성과가 오히려 권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진정한 연대는 이루어지기 힘든 것입니다. 차별을 반대하는 곳에 인권운동이 있다면 평등한 소통과 역할분담은 그 곳에서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만 합니다. 단체에 대한 고정적인 상이 꼭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어떤 단체는 대표가 없을 수도 있고, 사무실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은 그 단체의 운동 방향이나 정치적인 지향과 관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근자가 실명을 밝히고 활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것이 신변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천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로 자기 소개를 하는 경우, 실명이 아닌 자신이 불려지고 싶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행사 시 사진이나 비디오 카메라의 촬영에 대해 연대 초기부터 논의를 하는 등의 실천이 요구됩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_장애여성/장애인

우리는 장애여성이라 부릅니다. 그동안 인간이 남성을 뜻해왔던 역사가 있듯이 장애인도 남성장애인만을 뜻해왔습니다. 여성장애인은 여학생, 여의사처럼 '보편적인' 명칭 앞에 여성을 붙여서 따로 불르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명칭을 거부하며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는 뜻을 가진 장애여성을 우리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또한 예로부터 불구자나 장애자라는 말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능력이 없고 모자라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몸의 기능이 그들이 보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특히 장애인을 비하고 동정하는 뜻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공식적인 명칭인 장애인으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우라는 명칭은 장애인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을 '친구'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입장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_장애여성이 말한다! 친절의 조건

휠체어는 나의 몸!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도와주고 싶다구요? 저한테 먼저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방식은 제게 도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정어린 눈길, 하지만 난 불행하지 않아요.
나도 당당한 성인! 몸이 작다고 어린아이 취급하지 마세요.
반말은 친근감의 표현이 아니라 무시의 표현이랍니다.

_장애인과 만남을 가질 때 체크해야 할 편의시설

1. 행사장이 2층 이상이거나 지하일 때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엘리베이터 안에 휠체어에 앉아서 버튼을 누를 수 있는가.
2. 턱이 있는 곳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가.
3. 장애인 주차장이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가.
4.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가, 청소 도구함으로 쓰이거나 방치되고 있지 않은가,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5.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안내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가.
6. 시각장애인을 보조할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가.
7. 행사에 청각장애인 위해서 한글자막이나 수화통역이 준비되어 있는가.
8. 행사장에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_장애를 가진 사람과 만날 때 지켜야 할 점

1. 성공한 장애인을 초인처럼 그리지 맙시다.
2. 장애를 선정적(흥미유발, 감동유발을 목적)으로 다루지 맙시다.
3. 신체적 한계가 아닌 능력을 강조합시다.
4. "신체는 못쓰지만 정신만은 멀쩡하다." "장애를 입었어도 밝게 산다." 이런 식의 상투적인 문구와 선입견을 전적으로 피합시다.
5. 사회의 활동적인 참여자로서 장애인을 소개합시다. 장벽을 깨뜨리고 의사소통의 통로를 여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과 업무환경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상호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묘사합시다.
6. 장애나 질환의 명칭을 장애인과 동일시해서 호칭하지 맙시다.
   예) 소아마비들, 뇌성마비들.

7. 현재 우리사회는 비장애인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의사가 무시되기 쉽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화를 하거나 함께 활동을 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장애인의 의사를 듣는 것입니다.

장애여성공감

_아웃팅, 무엇이 문제인가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 단체는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이하 끼리끼리),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 장애여성공감입니다. 이는 곧 연대 행사를 진행할 때, 같이 활동하는 끼리끼리의 활동가 및 회원들, 즉, 성수자들의 아웃팅 문제에 항상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웃팅outing' 이 왜 그렇게 성소수자에게 위험하고 치명적인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웃팅' 은 성소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성정체성 혹은 성정체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일련의 정보들을 타인이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회에 만연한 동성애혐오는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노출되었을 때 당사자를 상당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하게 합니다. 성정체성을 매개로한 직장으로부터의 해고, 학업 상의 불이익, 가족과 또래 집단으로부터 가해지는 배척과 폭력 등이 그러하지요. 이런 식의 상황들 속에서 성소수자들이 물리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망 안에서

또한 편견과 멸시가 담긴 시선과 반응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고려 지점입니다.

"저 사람 레즈비언이래.", "아, 그 사람? 그 사람 끼리끼리에서 왔잖아." 등의 직접적이고 적나라한 말들이 아웃팅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느 단체 소속이세요?" 하고 묻는 것 혹은 마구잡이로 사진을 찍어 아무 곳에나 그 사진을 게시하는 것 등도 역시 아웃팅의 일종입니다. 말하자면, 전자의 질문을 받은 당사자는 머뭇거리며 답변을 꺼리게 될 게 분명하기에 질문을 던진 이와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질문 받은 사람의 소속을 직감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 준비 과정 혹은 행사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성소수자가 참여하고 있는 걸 찍은 사진이 온/오프 라인 제한 없이 떠돌게 된다면 행사의 성격과 취지가 이미 대중적으로 공개된 상황이기에 사진만으로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짐작하게 하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그러하고요.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말할 권리를 갖습니다. 커밍아웃을 할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는 오롯이 성소수자 본인의 몫입니다.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자기가 관리할 권리를 갖습니다. 누구도 제멋대로 타인의 성정체성을 추측하거나 폭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소수자의 인생도 온전히 그 개인의 몫입니다. 어떤 타인도 그 성소수자의 인생을 좌우할만큼의 위해를 가할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건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일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상황에 처한 이에 대한 몰이해는 결과적으로 크나큰 폭력을 낳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직시하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실천들을 모색하는 연대체인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는 작년 2월 처음으로 연대체를 구성할 때 부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참고/ 끼리끼리 홈페이지 www.kirikiri.org 中 아웃팅 방지 캠페인 게시판)

_아웃팅 문제 관련하여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에서 기울여 온 노력들

행사를 준비하지 않고 일반업무들을 진행하는 시기의 다닮 운영위원회 체계 속에서도 줄곧 주의해 온 바이지만, 특히나 무지개 시위를 기획하고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서 다닮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서로 지켜가며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다닮연대 차원의 모임에서 자기 소개할 때는 소속을 밝히지 않고 다닮 안에서 불리우고 싶은 닉네임으로만 자신을 알린다. 마찬가지로 다닮연대의 활동가들은 서로의 소속을 묻지 않는다.
+ 다닮연대 구성원들이 자원활동가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더욱 각별히 위의 사항을 주의한다. 외부 단위 사람에게 소개할 때 역시 "저는 다닮연대의 누구누구입니다." 라고만 소개한다. 외부인들에게도 소속단위에 대한 질문은 삼가달라고 미리 다짐을 해 둔다.
+ 당 행사 뿐만아니라 함께 일을 해 나가는 단계에서 구성원들사이가 보다 친밀해 질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미리 의사를 묻지 않은 채 같이 찍은 사진과 같은 것들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 다닮연대 행사를 같이 준비하는 끼리끼리 회원들 간에도 다닮연대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아닌 끼리끼리 안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만한 소리로 부르는 일을 삼간다.

_무지개 포럼 및 무지개 시위 시 주의할 사항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이하 다닮연대)의 포럼이 열리는 장소와 시위가 열리는 장소에서 카메라를 꺼내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꺼내지 말아달라는 건, 촬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방에 숨긴 채로라면 찍어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다른 이들과 섞여 있는 성소수자들에게는 디지털 카메라와 핸드폰 카메라를 포함한 각종 카메라와 캠코더 등이 작동되는 것이 그 자체로 너무나 공포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 카메라 앞에 서서 " 나는 동성애자"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카메라에 찍힌 사람 중 누가누가 성소수자인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이처럼, 좀 지나친 경계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통제를 해야만하는 이유에 대해 최대한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지요.

다닮연대를 구성하는 세 단체 중에는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이하 끼리끼리)라는 성소수자 단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다음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A라는 사람은 끼리끼리의 회원이자 활동가입니다. A는 행사를 준비한 기획단일수도 있고 당일에 구경을 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A가 끼리끼리 회원이 아닌 레즈비언이라고 해도 별로 달라질 바는 없습니다만.

A는 무지개 시위 행사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A는 누군가가 찍은 사진의 프레임에 잡힙니다. 예상치 못한 과정을 거쳐 A가 등장하게 된 그 사진이, 개인 블로그 등의 경로를 타고 인터넷에 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A의 지인들이 그 사진을 접하지 못하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변인들로부터 성정체성에 대해 다소 의심을 받아 왔던 성소수자들의 경우일수록 그런 식의 자료 노출로 인해서 곤경에 빠질 위험이 더 큽니다. 아무리 만에 하나의 확률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소수자 한 개인의 인생에 너무나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상책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이 모든 위험 가능성들을 매 순간 머리속에 떠올리며 카메라 촬영 여부에 대해 내내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처지 그 자체, 그것 자체가 이미 너무 억압적인 경험이기에, 스스로 열과 성을 다 기울여 준비한 행사에서까지 그렇게 괴롭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 가장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적어도 행사 당일의 시간들만큼은 나와 우리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여성성소수자들을 위한 시공간이면 좋겠다, 그 속에서 또 한번 움츠러들고 싶지는 않다, 는 마음일 터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권고들을 자발적으로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며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꺼이 지켜 주실 수 있는 점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각종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핸드폰 카메라 포함) 및 캠코더 촬영 금지합니다.
+ 촬영 행위 적발 즉시 필름 수거, 메모리 칩 수거, 녹화 테이프 수거합니다.

+ 사진 촬영 및 테잎 녹화에는 지정 스탭과 공식 카메라만 투입됩니다.
+ 지정 스탭은 스탭임을 표시할 수 있는 알림용 목걸이를 걸어 다른 이들과 구별되게 할 것입니다.
+ 사진 촬영을 제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스탭이 따로 있습니다.
+ 이 스탭 역시 스탭임을 표시할 수 있는 알림용 목걸이를 겁니다.
+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위 스ㅌ들의 안내에 성실히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 서로가 불쾌한 일 없이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스탭의 권고를 존중하는 게 될 것입니다.

_언론 보도 용 사진 자료 우송 건

보도 용 사진 자료는 행사 직후에 미리 받아둔 취재 기자 이메일로 우송합니다. 공식 카메라로 촬영한 행사 사진 중 외부 공개용으로 무리가 없는 것들을 다닮연대 차원에서 선별해 우송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진 자료가 필요한 취재진은 행사 시작 직전 해당 부스에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 주시거나 연락처가 적혀있는 명함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들의 임의적인 사진 촬영 역시 절대 금지이니 그 점 명심해 주십시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단체소개 (가나다 순)

_장애여성공감

다양한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수많은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여성의 몸은 남성중심, 비장애인중심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정상성의 기준을 강요당하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온갖 폭력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을 배제하는 제도와 기준이 가진 문제를 공감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1998년 2월 14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사회의 주변부에서 장애와 여성임을 이유로 분리되어 있는 장애여성의 문제를 알리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일상적인 차별, 사회제도와 기준이 가진 문제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실천하며 다양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하여 장애여성을 위한 위기개입과 상담활동을 통한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기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는 장애여성이 폭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 주요활동

- 교육사업 : 1년간 회원대상의 교육과정, 장애여성인권캠프
- 출판사업 : 장애여성전문잡지 [공감] 출판, 소식지 발간
- 문화사업 : 장애여성난장, 장애여성연극팀 '갑자기' 공연 등
- 연대사업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운영

✚ 전화 _ (02) 441-2384
✚ 팩스 _ (02) 441-2328
✚ 이메일 _ wdc21@hananet.net
✚ 홈페이지 _ www.wde.or.kr
✚ 주소 _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7-1 세종프라자 607호(134-825)
✚ 후원계좌 _ 국민은행 846-01-0035-429
우리은행 599-160911-13-101
신한은행 237-05-010650
조흥은행 365-01-065622
우체국 013102-01-003621
지로번호 7664436 (장애여성공감)

_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는 2001년9월20일 새로운 평화를 원하는 여성주의자들의 모임을 통해 시작되었다. 전쟁의 피해자로서,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행위자로서 여성과 어린이,성 소수자,장애인,소수 인종 등은 언제나 잊혀져왔다. 이들의 목소리는 없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중심

적인 목소리에 의해 가려져왔다.

WAW는 일상적 차별과 폭력이 전쟁과 다르지 않고, 그것이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또다시 일상에서의 차별과 폭력들을 강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결성을 국가나 민족이라는 단일하고 거대한 집단이 아닌, 각기 다른 위치에서 다양한 정체성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WAW는 묻혀져왔던 목소리를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 현재 글,번역,강의,집회,세미나,연대활동 등을 해나가고 있다.

✚ 이메일 _ wawmail@empal.com
✚ 홈페이지 _ www.kwaw.org
✚ 주소 _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0-30 301호 (121-090)
✚ 후원계좌 _ 조흥은행 333-04-787434
국민은행 846001-04-005013 (나영정)

_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이하 끼리끼리)는 여성성적소수자들의 수평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적소수자집단을 억압해온 이성애 중심주의에 대항하는 실천적 인권운동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인권단체입니다.

끼리끼리는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제되는 모든 유무형의 제도와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며 특히 성정체성을 매개로 하여 가

해지는 각종의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활동들을 기획합니다. 또한 만연해 있는 강제적 이성애 중심주의 사회속에서 고립되고 은폐되어 있는 레즈비언 사회에 건강한 문화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끼리끼리는 성정체성 관련 각종 상담을 이메일, 전화, 게시판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상시적으로 타 단체 활동가들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펼쳐나가고 있는 '동성애 바로알기' 강의 사업 역시 끼리끼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소모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반 커뮤니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결성한 '반성폭력 네트워크' (www.kikiri.org/network) 의 결합 단체로써 성폭력 문제에 관련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는 아웃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고민을 담은 여러 글들로 이루어진 끼리끼리의 웹진 또다른 세상(www.kirikiri.org/ttose)은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 웹진입니다.

간사 2인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오후 7시에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대표전화는 매일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열어둡니다. 끼리끼리는 이 강고한 이성애 중심주의의 벽을 허물 그날까지 여성성소수자들의 구체적인 억압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서 살피는 운동을 해 나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전화 _ (02) 703-3542
+ 팩스 _ (02) 703-3543
+ 이메일 _ kiri9411@chollian.net
+ 홈페이지 _ www.kirikiri.org
+ 후원계좌 _ 국민은행 498101-01-049888
  조흥은행 333-04-691038
  우리은행 784-036387-02-101 (예금주:끼리끼리)

_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는 2003년 3.8 여성의 날 무지개 시위를 시작으로 여성의 다름과 또 닮음을 이야기 해 왔습니다.

우리가 '다름'을 말하는 것은 개개의 여성이 처한 다른 상황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른 성 정체성, 서로의 다른 장애의 조건, 서로의 다른 삶의 방식을 직시하고 다름을 말합니다. 비장애 여성에 의한 장애여성 차별, 이성애자 여성에 의한 성소수자 여성 차별, 삶의 조건에 따른 여성간의 차별, 그것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가 다시 '닮음'을 말하는 것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함입니다.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작지만 큰 목소리'를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중심으로 편입해서 권력에 의존하고, 권위적이며, '다름'을 묵살하는 운동방식

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소수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중심과 주변의 위계를 허물며 다름을 인정하고 긍정할 것입니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 나이 등에 기반한 '다름'으로부터 비롯되는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전쟁과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에 저항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다름'은 우리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는 모든 차별과 폭력이 없어지는 세상을 꿈꾸며,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우리들과 닮은 여성들과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 전화 _ (02) 441-2392
+ 팩스 _ (02) 441-2328
+ 이메일 _ dadam38@hanmail.net
+ 홈페이지 _ www.dadam.org
+ 주소 _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7-1 세종프라자 607호(134-825)
+ 후원계좌 _ 545601-01-052489 나영정(다닮연대)